

# 일본 近江지방의 聖德太子신앙

松本眞輔\*

## 目 次

1. 들어가는 말
2. 太子信仰의 地域性
3. 『伝暦』와 近江
4. 太子建立寺院을 둘러싸고
5. 近江國에서 전해온 太子 신앙
6. 油日神社의 太子伝承
7. 近江로 도망간 太子
8. 近江와 전쟁
9. 맺음말

## 1. 들어가는 말

近江國——현재 대략 滋賀縣 부근에 해당하는 지역의 옛 이름이다. 琵琶湖(비와코)를 둘러싸고 있는 이 지역은 奈良와 京都 부근에 있어 옛날부터 많이 개발되어 왔다. 『延喜式』에서는 「大國」이라고 불리는 비옥한 지역이다.

奈良와 京都에서 가깝다는 이유도 있어 近江國은 사서에도 자주 등장한다. 天智天皇六年(667)에는 大津에 수도가 만들어지고 天平十年(742)에는 離宮인 紫香樂宮가 만들어졌다. 동서를 연결하는 교통 요소였기 때문에 내란이 일어났을 때는 전략적으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 壬申内亂 때 주된 전쟁터가 된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또한 近江는 종교적으로도 중요한 지역이다. 琵琶湖 서남부에는 比叡山과 園城寺가 창건되고 天台宗의 중심지로서 확고한 지위를 쌓아 왔다. 京都에서 보아 鬼門의 방향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도를 수호하는 땅으로 선정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近江國, 특히 琵琶湖 동남부에 위치하는 일대에는 聖德太子에 관한 수많은 전설이 남아 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太子가 세웠다는 전설을 가진 사찰들이다. 각기

---

\* 경희대학교 일본고전문학

사찰이 가진 寺誌(緣起)를 보면 太子 창건을 주장하거나 太子가 만들었다고 하는 불상을 안치하고 있다. 물론 太子와 인연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사찰은 일본 각지에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近江國는 집중하는 밀도가 다른 지역보다 훨씬 높다.

太子와 近江는 원래 거의 관계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太子의 伝記가 있는 『日本書紀』, 그리고 太子 신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한 『聖德太子伝曆』등에는 太子와 近江의 관계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平安 시대까지의 太子 신앙에 있어서 近江는 특별히 깊은 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세 이후 太子 전설이 확산됨에 따라 近江에도 서서히 太子 신앙이 퍼져 갔다. 언제부터 이 지역에 太子 신앙이 퍼지기 시작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近世 초기에 近江 각지에 있는 사찰에서 太子와의 인연을 강조하는 사지가 작성되었다. 이런 사지의 원천이 된 것은 중세에 형성된 太子 신앙이라고 생각되지만 이런 신앙 속에도 近江와 太子의 관계는 그다지 긴밀하지 않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近江國의 太子 신앙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하고자 한다. 그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목표를 설정하기로 하겠다.

첫째는 近江의 太子 신앙에 대한 전체적인 겨냥도를 만드는 것. 지금까지 太子 신앙에 대한 연구가 많았지만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었다. 때문에 이 지역에서 太子 신앙이 퍼진 사실에 대해 종합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둘째는 이 지역에서 볼 수 있는 太子 신앙의 특징을 밝히는 것이다. 太子 신앙이라고 해도 실제로는 여러 차원이 있는 것은 벌써 몇 번이나 언급한 바 있다<sup>1)</sup>. 당시 太子 신앙을 보면 觀音 신앙을 기초로 한 것이 많았으나 그 이외에도 여러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예를 들면 太子의 아버지인 用明天皇를 문병하는 孝養太子나 탄생했을 때부터 불법에 귀의한 것을 가리키는 南無仏太子, 말을 타고 전국을 순회하는 黑駒太子등 그 모습은 다양하다.

한편 近江國의 太子 신앙에서 특징적인 부분은 守屋合戰과 깊은 관련이 있다는 점이다. 조정내의 패권과 불법 흥륭을 둘러싸고 싸웠다고 하는 守屋合戰이지만 그 때 태자가 패배하고 후퇴하는 장면이 있다. 『書紀』나 『伝曆』는 어디서 일어난 전쟁인지에 대해서 명기하지 않았지만 近江國에서 만들어진 사지에는 그 때 太子가 이 지방으로 도망했다는 설화가 실려 있다. 원래 太子와 관계가 전혀 없었던 지역이 守屋合戰를 매개로 연결되어 가는 것이다.

이러한 설화가 언제쯤에 발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알 수가 없다. 室町時代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그리고 守屋合戰 이외의 太子 신앙을 가진 사찰도 적지 않아 상호간의 관계도 알기 어렵다.

그러나 近江國에 초점을 맞춰 보면 원래 잘 알려지지 않은 문제도 많아 聖德太子 신

1) 松本眞輔「聖德太子と武威」(韓國外國語大學校『日本研究』22、2004年6月) 等

앙을 생각할 때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하 앞부분에서 언급한 두 개의 문제를 풀어 보고자 한다.

## 2. 太子信仰의 地域性

太子 신앙은 四天王寺와 法隆寺를 핵심으로 형성되어 발전해 왔는데 그 이외에도 각 지방마다 독자적인 太子 신앙이 생겼다.

太子信仰에 대해서는 벌써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많은 연구는 太子 관계 사찰의 중핵이 된 四天王寺와 法隆寺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다<sup>2)</sup>. 이러한 사찰에는 太子와 관련 있는 유물이 많아 연구가 집중되는 것에도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만 太子 신앙은 결코 이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현재 大阪府 남부, 즉 河内國(카와치노 쿠니) 혹은 攝津國(셋쓰노 쿠니)라고 한 지역에도 太子 신앙이 퍼지고 있다. 예를 들면 大阪府南河内(미나미카와치)郡에 있는 叡福寺는 太子의 묘지로 알려져 있고 이 지역의 太子 신앙의 중심지가 되어 있다<sup>3)</sup>. 소위 科長墓所라고 알려져 있는 사찰이다. 叡福寺는 「上の太子」라고도 하고 「中の太子」라고 하는 羽曳野(하비키노)市 野々上(노노가미)의 野中寺, 그리고 「下の太子」라고 하는 八尾(야오)市の 勝軍寺와 같이 大阪 남부의 太子 신앙을 형성하는 중요한 사찰이다.

이 지역에서 太子 신앙이 번성한 이유는 정확히 알 수는 없다. 다만 河内에서 발생한 守屋合戰의 전설과 어떠한 관계가 있다고 추측될 뿐이다. 勝軍寺는 중세 太子伝의 세계에서 일반화된 「椋木伝承<sup>4)</sup>」로 알려진 사찰이고 守屋合戰과 깊은 인연이 보여진다. 요컨대 勝軍寺 부근에는 전쟁에 패한 守屋(모리야)의 영혼을 위로하는 守屋塚도 존재한다.

그 이외에 太子 신앙으로 알려져 있는 사찰은 兵庫(효고)縣加古川(가코가와)市 부근이다. 여기는 옛날에 法隆寺 莊園이 있었다는 연고로 사찰의 땅임을 알리는 傍石이 있는 이외에도<sup>5)</sup> 太子繪伝을 가진 鶴林寺나 斑鳩寺가 있다.

2) 太子 신앙의 선구적 연구로는 大屋徳城『仏教各宗に於ける太子信仰』(法藏館, 1921年2月)、小倉豊文『聖德太子と聖德太子信仰』(綜芸舎, 1963年9月)、林幹弥『太子信仰』(評論社, 1972年6月)、同『太子信仰の研究』(吉川弘文館, 1980年2月)、金治勇『聖德太子信仰』(春秋社, 1979年3月)、武田佐知子『信仰の王權聖德太子』(中央公論社, 1993年12月)、藤井由紀子『聖德太子の伝承—イメージの再生と信仰』(吉川弘文館, 1999年8月) 등이 있다. 대부분은 法隆寺와 四天王寺의 문제를 둘러싼 논문이다.

3) 小野一之『聖德太子墓の展開と叡福寺の成立』(『日本史研究』143, 1991年2月)

4) 『正法輪藏』나 繪伝에 나오는 설화. 守屋와 싸웠을 때 패한 太子가 守屋들 때문에 위기 상태에 빠졌다. 그 때 椋木가 두 개로 갈라지고 太子가 그 안에 들어갔다는 이야기. 『日本書紀』나 『伝暦』에서는 찾을 수 없는 이야기이고 중세 太子伝 세계에만 있는 것이다. 勝軍寺에는 현재도 그 때의 椋木가 현존하지 만 이 사찰과 太子가 연결되는 것인지, 그리고 어찌하여 많은 문헌에 나타나는 것인지 이유는 알 수 없다.

또한 太子 신앙이 번성한 지역으로는 「순례불(まいりの仏)」로 유명한 東北地方 특히 岩手(이와테)縣을 꼽을 수 있다<sup>5)</sup>. 太子와 黑駒 (太子가 탄 말) 의 그림 앞에서 結緣者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약간 특이한 신앙 형태가 이 지방에서 전해져 왔다. 그러나 그 기원은 알 수 없고 또 이 지역에 왜 이러한 신앙이 생겼는지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신앙은 현재에도 이어지고 있고 太子 신앙이 확산되고 있음을 가리키는 사례로 주목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지역에서 太子 신앙이 퍼지고 있었던 사실을 알 수 있지만 近江國의 太子 신앙도 실은 이러한 사례에 못지 않게 다양한 면모를 가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거의 언급이 없는 부분이지만 그 만큼 검토할 만한 문제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3. 『伝暦』와 近江

聖德太子와 近江는 과연 어떻게 연결된 것일까? 이 문제에 대답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역사적으로 볼 때 초기의 太子 신앙에는 近江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日本書紀』에는 太子와 近江에 관계를 시사하는 기술은 일절 존재하지 않는다. 近江가 나오는 문헌은 『伝暦』가 처음이다. 그러나 『伝暦』에 등장하는 부분은 일부분에 불과하다.

『伝暦』太子三十五歳條에는 丈六仏 二体を 만든 鞍作鳥(쿠라쓰크리토리)에게 「近江坂田郡水田二十町<sup>7)</sup>」를 주었다고 한다. 또한 太子四十八歳條에는 太子가 近江를 巡檢하면서 天智가 近江에 천도하는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있다.

即越淡海。巡檢志賀栗本等郡諸寺竟。駐駕栗津。命左右曰。我死五十年之後。有一皇帝。遷都此處。

여기서 말하는 「栗津」는 『書紀』天智三年六月條에 기록된 大津宮를 가리키는 것 같다. 『伝暦』은 『書紀』를 바탕으로 해서 이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벌써 지적이 있었듯이<sup>8)</sup> 『伝暦』는 그 지명을 栗津라고 쓰고 『今昔物語集』도 그것을 계승한 것을

5) 谷岡武雄『聖德太子の榜示石』(學生社、1976年11月)

6) 門屋光昭「まいりの仏と聖德太子——氣仙地方の聖德太子信仰を中心として」(『岩手の民俗』三、1982年9月)、同「まいりの仏(十月仏)の祭祀」(『岩手縣立博物館研究報告』三、1985年8月、同四、1986年8月)、NHK「聖德太子」プロジェクト編『聖德太子信仰への旅』日本放送出版會、2001年1月

7) 이하 『伝暦』의 인용은 伏見宮本을 사용한다. 『伝暦』은 甲乙 2가지 伝本이 존재하고 가장 오래된 사본이 바로 伏見宮本이기 때문이다. 『伝暦』 伝本에는 아직 불분명한 부분이 많아서 여기서는 필사 연대를 존중해서 사용하기로 했다.

보면 平安시대에는 大津宮가 栗津였다는 통념이 있었던 모양이다.

이상은 『伝暦』에 기록된 太子와 近江의 관계이다. 그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太子의 諸國巡檢에 관한 기사. 또 한가지는 所領 문제이다. 諸國巡檢은 일본 각지에 이르는 것이고 특히 近江國만을 방문한 것은 아니지만 太子과 관련이 있는 부분은 주목할 만하다. 또한 「近江坂田郡水田二十町」가 원래 태자가 소유하는 땅이라고 간주했다고 하면 太子와 近江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러나 『伝暦』 편자가 영지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쓴 것인지 알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 추측할 수 있는 것은 많지 않다.

이런 식으로 『伝暦』에 있어 近江에 관한 기사가 보이기는 하지만 화제의 중심으로 기능하는 것은 아니다. 천도에 관한 부분도 직접적으로 太子와 관련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伝暦』에 나타난 近江國는 간신히 太子와 무관하지 않는 수준에 머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太子와 近江國가 긴밀하게 관련되는 흔적은 찾아내기가 힘들다.

#### 4. 太子建立寺院을 둘러싸고

太子와 近江와의 관계가 강화되어 간 시기는 太子가 세웠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는 사찰 중에 近江國에 있는 사찰이 포함되고 난 이후의 일이다.

太子 건립 사찰에 관해서는 벌써 자세한 선행연구가 있는데<sup>9)</sup> 그것에 의하면 『書紀』推古三三年의 기사에 일본에 있는 사찰은 46이 된다는 기사가 있고 太子가 그것들을 세웠다고 생각해서 실제로 있는 사찰과 대응시키는 작업이 중세 太子伝에서 진행되어 있었다.

그러나 『書紀』에는 구체적인 사찰의 이름이 쓰여 있지 않고 어느 절이 46곳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전설마다 차이가 있었다. 이러한 전설 중 近江國과 관련이 있는 것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sup>10)</sup>. 출전은 『聖德太子伝私記』를 비롯한 法隆寺 계통의 太子伝 주석이다. 책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많은 사찰의 이름이 나타난다.

金剛寺 (蒲生郡蒲生町)、石塔寺 (蒲生郡蒲生町)、蒲生堂廢寺 (蒲生郡蒲生町)、阿弥陀寺 (栗太郡金勝町)、觀音寺廢寺 (草津市芦浦町)、長命寺 (近江八幡市長命寺町)、石馬寺 (散寺?) (神埼郡南五箇莊)、敏滿寺? (犬上郡多賀村)、勝生寺 (蒲生郡平田村)、大般若寺 (草津市志那中町)、長光寺 (近江八幡市長光町)、瓦屋寺 (八日市市建

8) 『國史大辭典』「近江大津宮」條

9) たなかしげひさ「太子伝にもれた聖德太子 信仰の寺々」(『四天王寺』332、1968年6月)、大脇潔「聖德太子關係の遺跡と遺物」(『聖德太子事典』柏書房、1997年11月)

10) 前掲注大脇論文.

部)、懷堂? (愛知郡葉枝見村?)

그 중 어떠한 이유로 현존하지 않는 사찰도 있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부정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있다. 그리고 그것들을 보면 琵琶湖 동남부에 많은 사찰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太子 창건 전설을 가진 사찰이 집중하고 있는 지역과 동일하고 (후술) 近江國라고 해도 지역적으로는 한정되어 있다.

이러한 사찰 중 오래된 기록으로는 嘉祿三年(1227)에 四天王寺에서 만들어진 『天王寺秘決』에 나온 百濟寺에 관한 것이다. 『天王寺秘決』은 『伝暦』의 주석이라는 성격을 가진 太子伝이고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一 俱多羅寺事

在近江國。太子御建立。云々。緣起在天皇寺。云々。但百濟寺緣起ヲ云歟。11)

이것은 현재도 滋賀縣 愛知(아이치)郡에 존재하는 百濟寺 (하크사이지) 를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미 13세기 시점에서 太子가 百濟寺를 창건했다는 전설이 존재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전설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는 불투명하다 그 이외의 사찰들도 그 유래를 거슬러 올라가기가 힘들다.

그러나 이러한 사찰 중 滋賀縣 八日市(요카이치)市 瓦屋寺(카와라야대라)는 주목할 만한 전설을 가지고 있다.

이 절은 四天王寺 건립 때 여기에서 기와를 만들었다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聖法輪藏』은 四天王寺 혹은 그 부근에서 쓰여진 책이라고 하는데, 『聖法輪藏』 본문에 이어 부가된 부분에 「四天王寺建立事」라는 문장이 있고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彼ノ寺ノ葺瓦ハ、太子自リ百濟國ノ所ノ渡ル瓦造ノ大公ヲ召具シテ、近江國越ノ郡ニ御行シテ、多ノ瓦造リ燒カセ、如ク山岳ノ積置キ給ヘリ、而時近從ノ人々申サク

抑、攝津國河内國等ニテモ、多クノ瓦造ラセ侍ルヘシ、加様ニ隔國ヲ遠クシテ境ヲ、運濟人夫ノ之惱ヒト罷リ成リ侍リ、向後遠國ノ土木營ヲハ思食留ラセ給ヘト被申ケレハ、太子答ヘテ云ク、

夫八閭ノ建立者ハ、詮ク非ス私ニ、皆ナ悉ク依テ諸天善神之擁護ニ、成就スル者也、其ノ勝利ヲ可シト顯、如ク山岳ノ積ミ置キ侍リケル向テ土瓦ニ、暫ク有リ御祈念ケレハ、紫雲忽ニ聳瓦ノ上ニ立チ覆ヒ侍リケレハ、數千万枚ノ瓦如ク村鳥ノ虚空ニ飛ヒ連テ、從リ東近江越郡、遙ノ攝津國難波ノ浦ノ四天王寺ノ諸堂ノ上ニ、人ノ如葺ケルカ、女瓦男瓦成シ並ヲ、一枚モ不増不減、悉ク被葺合ヒケル也、

11) 『四天王寺古文書 一』p53

如斯、以奇特ヲ、太子御一期ノ不思議トシ給ヘリ、彼ノ瓦造置キ侍リケル在所ハ、東近江ノ越ノ郡ニ、海道ヨリ東ニ瓦屋ト申ス山寺ニテ侍也<sup>12)</sup>

이것은 四天王 건립 이야기다. 太子 22살 때 四天王寺 건립이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때 백제에서 장인을 초빙해서 近江國에서 기와를 만들었다고 한다. 그리고 「諸天善神」의 힘으로 기와들을 空輸하고 四天王寺 지붕을 만들었다고 하는 것이다. 太子伝에 이 설화가 삽입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瓦屋寺가 가지고 있었던 전설을 인용한 가능성도 있다.

이와 같은 이야기는 叡山文庫天海藏『太子伝』(享德三年(1454)寫) 에도 볼 수 있다. 이 책은 増補系라고 하는 太子伝의 한 伝本이지만 이 책에 채록된 太子二十二歳條 四天王寺 건립 이야기 중에 瓦屋寺가 등장한다.

七ニハ金堂ノ樞ノトシキツヒサル事、太子未來記ニ、玉造ノ岸ノ西ノ下ニ、瓦二万枚燒置テ、竈ノ穴ヲ埋ミ隱セリ。修造ノ時ニ顯ルヘシト云ヘリ。是ヲ堀出シテ七間四面ノ講堂ヲ可葺云々。此修造ノ瓦ノ土ヲ蘇我大臣ヲ以テ日域ヲ尋サセラルハニ、近江國蒲生郡石崎山ノニ可然土有ト撰、太子ニ奏奉ル。太子ノ曰ク、相当ノ土以現思ニ、末世濁亂マテモ佛法ノ可有事眼前覺ル也。聽テ彼靈山ニ行テ瓦ヲ造リ運ヒテ御幸ナル、目出カリケル事也トテ、十万六千枚ノ瓦ヲ彼山ノ麓マテ造燒テ運之。今二万枚ノ瓦是也。此峯依地タルニ寺ヲ建立シ御テ、等身ノ千手觀音ヲ安置シ給フ。其處ヲハ當時モ瓦屋寺名ク。近江國ニ太子御建立ノ寺十二ヶ處アリ。瓦屋寺モ是内也。<sup>13)</sup>

玉造 (타마쓰크리: 현재 大阪市天王寺區에 같은 지명이 있으나 동일한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에 2만개의 기와를 매장하고 末法の 세계에 대비한다는 설화이다. 그리고 그때 近江國의 기와를 선택했다고 한다. 사찰을 건립할 때가 아니라 미래에 대비한다는 점에서 『聖法輪藏』과 차이가 있다. 그리고 千手觀音을 안치했다는 내용도 『聖法輪藏』에 안 보인다. 瓦屋寺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을 근거로 한 것인지 알 수 없으나 기와를 매장했다는 기사는 『四天王寺御手印緣起』에 보이는 기술을 참고로 해서 장소만 近江로 바꾼 것이라고 생각된다.

玉造岸西方、瓦燒置二万枚、埋藏竈穴、至修造時、鑿取用而已<sup>14)</sup>

원래 기와는 玉造에 매장되어 있었다는 전설이지만 『聖法輪藏』나 叡山文庫本 기술은 지명을 瓦屋寺로 바꾼 것이다.

12) 『眞宗史料集成第四卷』pp.545-6

13) 인용 부분은 叡山文庫藏本을 참고한다.

14) 『四天王寺古文書第一卷』p10

물론 近江에서 기와를 만들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설화가 이 지역에 관련해서 존재했다고 해도 문제는 없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必要條件에 불과하다. 이 이야기가 太子伝, 특히 四天王寺 건립과 관련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充分條件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단지 중세 太子伝이 작성되어 가는 과정에서 이 지역의 신앙이 일정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 5. 近江國에서 전해온 太子 신앙

近江에는 太子伝 주석에 나온 사찰 이외에도 수많은 사찰이 太子와 인연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앞에서 본 46곳의 太子 건립 사찰에 나오지 않은 사찰들도 太子와의 관계를 주장하는 경우가 많다. 여기서는 近江 지방의 地誌인 『淡海錄』(元祿二年(1689)에 初稿가 쓰여지고 元祿十年에 완성) 나 『近江輿地志略』(享保十五年(1730) 成立) 를 단서로 고찰하고자 한다. 이하 포괄적으로 太子와 관련된 사찰을 소개한다.

安土(아즈치)町觀音寺는 太子 창건 사찰이고 本尊인 관음상도 太子가 만들었다고 한다. 『淡海錄』의 기록을 보자.

此山ヲ織山又天蓋山トモ足無山トモ衣笠山トモ云フ舊跡ニ沙々貴山トモアリ此寺聖德太子ノ開基ノ由本尊ノ觀音モ太子ノ作也<sup>15)</sup>

이 절도 琵琶湖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고 이 지역에 太子 전설 유포 상황을 알 수 있다. 近江八幡(오우미하치만)市 願成就寺는 「此寺開基ハ聖德太子ノ建立ト云ヒ<sup>16)</sup>」라고 하는 전설을 가지고 있다.

神埼(칸자키)郡五箇莊(고카쇼)町 石馬寺는 현재 臨濟宗(선종)에 속하고 이 지역의 명찰로 유명하지만 이 절도 太子 창건 전설을 가지고 있다. 이 절은 앞에서 본 太子 건립 사찰들 에 포함되어 있다. 원래 이 절이 太子 건립 전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太子伝의 기술을 이용한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나 『淡海錄』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石馬寺ハ聖德太子ノ建立也。始土中ヨリ石馬ヲ掘出セシ故石馬寺ト号スト云フ。其石馬今ニ伝アリ。天文永祿迄ハ堂塔伽藍坊中共ニ相續ノ由、此石馬寺ノ峯ヲ界テ西ハ安樂寺也。コレモ太子ノ建立也ト云フ<sup>17)</sup>

15) 『近江史料シリーズ (4)』p23

16) 『近江史料シリーズ (4)』p26



이 기록에는 石馬寺 이외에 安樂寺가 나와 있다. 같은 이름을 가진 절이 滋賀縣守山(모리아마)市에고 있고 이쪽에도 「安樂寺村にあり。叡山無量院安樂寺と号す。聖德太子開基の靈場なり<sup>18)</sup>」라고 태자 창건을 전하고 있는데 위치를 보면 神埼郡의 安樂寺과 다른 사찰이라고 추측된다.

石馬寺 緣起는 『近江輿地志略』에도 나와 있다.

石馬寺石馬寺村にあり。叡山石馬禪寺と号す。寺記にいはく、推古天皇二甲寅の年聖德太子近江國の靈場を撰て伽藍を草創し給ふ。古に所謂良馬は地道に靈なるものなりと。是に於て、駿馬に乗りかれが行に任玉ふに、果してこの地に止る。太子此地の靈なるを見て、一寺を草創し、叡山石馬禪寺と号し給ふ。蓋し太子の乗たまふ所の駿馬、石となる。因て寺号となす。其石なほ存して、今樓門池中にあり。当寺本尊丈六の阿弥陀、惠心の作也。十一面觀音大士の兩尊は聖德太子の作也。

『日本書紀』에 의하면 推古2년에 전국에 사찰 건립 명령이 나와 있고 이 기사도 그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추정된다. 물론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설에 불과하지만 언제 만들어진 것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그리고 내용을 보면 『淡海錄』와 약간의 차이가 있다. 『淡海錄』에서는 땅 속에서 발굴된 石馬가 있다고 하는데 『近江輿地志略』에서는 太子가 말 타고 간 데가 靈地이었다고 한다. 이러한 차이가 생긴 이유는 확실하지 않으나 여기서는 두 가지 전설이 있는 것만 확인해 두자.

그리고 太子 건립46 사찰에 포함되는 百濟寺에 관해서는 『淡海錄』에

推古天皇ノ御宇ニ聖德太子百濟寺ヲ開基ト云フ。上宮太子神埼郡石馬寺ヲ創建ノ時、東ニ向ヒ金色ノ光明輝ケリ、コレ靈木也ト木立ヲ其儘ニ觀音ノ像ヲ自ラ彫刻シ、卽仏閣ヲ造立アリテヨリ以來、繁盛ノ靈跡トナリ。僧徒多ク集リ大領ヲ寄附アリテ大伽藍也<sup>19)</sup>

라고 하는 전설이 남아 있다. 石馬寺 창건 때 太子가 靈木을 발견했다는 내용이다. 이 지역에 太子 잔설이 퍼져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石馬寺가 있는 神埼郡에는 「同村にあり。淨光山乾德禪寺と号す。妙心寺の末寺なり。聖德太子の建立。推古天皇二甲寅の年なり(『近江輿地志略』乾德寺項)」 「河並村の北東にあり。相伝。聖德太子当村に金堂を御建立あり。依て村の名とすといふ(『近江輿地志略』神埼郡金堂村項)」와 같이 太子 창건을 주장하는 사찰이 있다.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한 것은 말할 것도 없겠지만 이 지역의 많은 사찰들이 太子 창건 전설을 만

17) 『近江史料シリーズ(4)』p31

18) 『近江輿地志略』当該項(『大日本地名大系(24)』)

19) 『近江史料シリーズ(4)』p38

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사례이다.

이상은 모두 近世 초반부터 중반에 걸쳐서 편찬된 地誌를 자료로 조사한 결과이다. 문제는 이러한 전설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지 각기 사찰에 관해서는 별도로 조사할 필요가 있다. 현시점에서는 겨냥도만 제시하고 연구의 기초로 삼고자 한다.

## 6. 油日神社의 太子傳承

다음으로 생각해 보고자 하는 문제는 近江의 太子 신앙이 자지고 있는 특징에 대해서이다. 이 문제에 관해서는 守屋合戰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여기서는 그 대표적인 사례로 油日(아부라히)神社의 太子 신앙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滋賀縣甲賀郡 油日神社는 油日岳에 鎮座하는 油日大明神를 모시는 神社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름神으로 현재도 製油業에 종사하는 사람들로부터 성겨지고 있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近江의 太子 신앙의 거점으로도 알려져 있다.

油日神社의 太子 신앙을 보여주는 유물은 室町時代 중기 제작으로 추정되는 4장의 聖德太子繪伝이다. 또 神社 창고에 慶長十四年(1609)에 쓰인 寶藏覺이 있고 繪伝 이외에 7권의 『太子伝抄』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太子伝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繪伝이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그림 이야기의 대본이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繪伝은 室町중기 이후 만들어졌다고 생각되고 『聖法輪藏』등이 성립된 이후 四天王寺 계통의 繪伝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油日神社에 太子繪伝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를 알려주는 자료는 없다. 그러나 이 神社에는 太子 신앙의 양상이 전해지는 史料가 존재하고 있다. 그것은 神社의 유래를 기록한 緣起이다.

油日神社에는 세 가지의 창건연기가 있다. 그 중 『油日大明神緣起』과 『油日大明神濫觴記』는 『神道大系』에 翻刻이 있고 『江州甲賀郡油日大明神緣起』가 필사본으로 油日神社에 소장되어 있다. 내용은 거의 동일하고 그 중 『江州甲賀郡油日大明神緣起』는 室町말 이전, 적어도 元龜三年(1572) 이전에 만들어졌다고 생각된다<sup>20)</sup>. 이하 이 緣起의 내용을 검토하면서 油日神社가 가지고 있는 太子 신앙의 특징을 검토하고자 한다.

油日神社의 緣起에 나타난 특징은 太子와 油日大明神의 관계가 守屋合戰을 매개로 연결되어 있는 점이다. 먼저 緣起 앞부분을 살펴보고자 한다.

20) 松本眞輔「中世聖德太子伝と油日神社の緣起」(『日本文學』612, 2004年6月)

厥当社大明神者、如意輪觀音之垂迹、娑婆示現之冥道也。遙尋神德之甚、人王三十代用明天王之皇子、聖德太子、以仏敎神道味之儀、月氏仏法欲弘日本州。爰守屋大臣、嫌之背君命。太子爲逆臣追罰、於大和國信貴山、祈弓箭之加護、新有神明之告、  
「近江・伊賀・伊勢三箇國之境有高山。入彼山、可求弓箭」云々。21)

太子가 如意輪觀音이라는 설명이 나오고 그 다음에 守屋合戰이 터진 경위가 쓰여져 있다. 『伝曆』에 대표되는 일반적인 太子伝과 다른 부분은 전쟁이 시작하지 전에 信貴(시기)산에 참배하고 밑줄에 있는 「高山」 즉 油日岳에 가서 화살을 받아오라는 託宣을 얻은 것이다. 이 전설은 다른 太子伝에 전혀 나오지 않아 油日神社에서 만들어졌다고 추측된다.

그리고 守屋合戰을 매개로 해서 太子와 油日大明神이 깊이 연결되어 갔다. 緣起 속에서 太子는 油日大明神에게 「吾爲衆生利益、欲退治佛法怨敵。願可授兵法之秘術 (저는 중생을 위해 불법의 적대자를 멸망시키고자 합니다. 방법을 전수해 주십시오)」라고 말하자 大明神은 화살과 병법서를 太子에게 주었다. 그로 인해 太子는 守屋合戰에서 승리했다고 한다. 太子의 병법 전수는 『正法輪藏』나 増補系太子伝에도 보이고<sup>22)</sup> 油日神社의 緣起는 이러한 중세 太子伝의 영향을 받아 쓰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守屋合戰을 매개로 한 전설을 近江國에 있는 사찰에서 여러 형태로 전해져 있다.

## 7. 近江로 도망간 太子

近世에 들어가면서 近江 지방의 太子 전설을 더욱 확대해 갔다. 앞에서 『淡海錄』나 『近江國輿地志略』에 있는 기록을 살펴봤는데 그 이외에도 守屋合戰을 계기로 사찰이 창건되었다는 전설이 많이 존재한다.

먼저 草津(크사즈)市觀音寺의 창건 기사를 보자.(觀音寺가 있는 草津市는 琵琶湖 남동부에 위치한다)

守屋合戰 때 太子가 守屋에 패해서 혼자서 芦浦(아시우라)에 도망갔다. 그 때 太子는 농작업중인 농부에 부탁해서 구멍을 파고 그 안에 숨어 위기를 벗어났다. 그 후 여기에 관음상을 안치하여 절을 세웠다고 한다. 『淡海錄』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21) 이하 油日神社의 緣起는 同社藏『江州油日大明神緣起』古寫本을 사용.

22) 牧野和夫「中世太子伝を通して見た一、二の問題(2)——所引朗詠注を介して、些か盛衰記に及ぶ——」(『東横國文學』14、1984年3月)、阿部泰郎『正法輪藏』東大寺図書館本——聖德太子伝繪解き台本についての一考察——(『芸能史研究』82、1983年7月)

芦浦ノ觀音寺ハ聖德太子ノ開基ニテ本尊モ太子ノ作也ト云。草津矢倉ノ合戰ニ弓削ノ守屋ニ太子打負從者モナク只一人此芦浦ヘ逃去給シカ、敵急ニ追掛ケル處、折節菜ヲ蒔ケル田夫アリ。彼ヲ頼ンデ我ヲ穴ヲ堀テ其中ヘ隱セト教ヘ玉ヒケレバ、田夫教ノマ、ニ穴ヲ堀テ埋隱シ上ニ菜種ヲ蒔ケレバ、立處ニ菜生セリ。追手共彼方此方ヲ尋レドモ、其處ヲ知ラズ歸リケレバ、田夫頓テ太子ヲ堀出シ助ケルト也。太子御感アリテ彼男ヲ則チ菜生氏ト号シ、爰ニ後伽藍ヲ建テ觀音ノ像ヲ安置シ、寺領ヲ附テ此寺ノ守リニ彼男ヲ申付ラレシガ

(以下略) 23)

太子가 守屋를 이기지 못해 도망가는 중간에 푸조나무(椋木) 속에 숨었다는 일화는 중세 太子伝 중에도 잘 알려진 이야기다. 예를 들어 増補系 太子伝의 하나인 内閣文庫藏 『太子伝宝物集』(天正十二(1584)年祐珍寫本) 太子十六歲條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져 있다. 즉 守屋에 패해서 위기에 빠진 太子가 푸조나무에게 불법 수호를 호소했는데 푸조나무가 두 개로 갈라져 太子를 보호했다고 하는 내용이다.

爰ニ、太子、既ニ危ク見ヘ給ヒタリケルガ、太子、御馬ニ鞭ヲアテ、ニ示シテ云。汝等、兒ガ方ヘ來ルベシトテ、靜ニヒカセ給所ニ、道ノ傍ニ、大ナルノ木アリ。太子誓テ曰。仏法我國ニルベクハ、非情ナリトモ、椋木、吾ヲ助クベシ。吾、又三世ノ諸仏ノ冥慮ニ不シバ、此軍ニ勝ベシト令旨アリ。其時、椋木忽ニ破テ、太子ヲカクシ奉リヌ。守屋ガ軍兵、此木ノ下ニ來テ、太子ヲ尋奉ルニ、太子不、椋木ヲ怪ケルモノハ、即御方ニ打レテ死ケリ。サテ、ツワモノドモハ空ク引歸リヌ。

其後、椋木又ワレテ太子ヲ奉ル出シ。其時、太子、神妙ナリ椋木トテ、澁川ノ城ニ引退ゾキ給ヘド、彼木ハ当代マデ神妙椋木トテ此在リ。大聖ノ化儀、不思議ナリシ御事共也。24)

『太子伝宝物集』이 쓰인 것은 鎌倉時代 말기라고 추측되고 15세기 중반에 서사된 叡山文庫藏 『太子伝』나 같은 시기에 서사된 輪王寺藏 『聖德太子伝』, 혹은 『八幡愚童訓』에도 같은 기사가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보면 室町時代에는 어느 정도 알려져 있었던 이야기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守屋合戰 패퇴와 구멍 속에 숨었다는 요소의 공통성을 보면 觀音寺의 전설은 그것이 변화한 것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일화는 『伝曆』에 없고 중세 太子伝을 매개로 퍼졌다고 해도 된다.

또한 觀音寺에 대해서 『近江國輿地志略』은 太子塚가 있었다고도 한다.

23) 『近江史料シリーズ(4)』p1

24) 内閣文庫藏本太子十六歲條.

同觀音寺界内に、半左衛門屋敷と云處あり、此處に太子塚ありしを、三十年以前に、伊岐代明神の社の界内へ移さる。相伝、往古聖德太子、守屋連と戦ひて敗北し、太子此處に走來て、土民にかくさん事をもとむ。土民則穴を堀て、太子を土中に隠し、其上に菜を蒔ば、即時に菜生ず。太子後に彼土民に菜生の称を賜。菜生は芦浦の先祖なりと云<sup>25)</sup>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 전쟁에 져서 도망간 太子를 숨겨줬다는 줄거리는 앞에서 소개한 『淡海錄』과 흡사하다. 같은 緣起에서 파생된 것 같다.

그리고 이러한 설화는 野州(야수)郡岡村(오카무라) 西隆寺의 緣起에도 볼 수 있다. 西隆寺는 현재 守山市에 있는 사찰이고 觀音寺보다 북쪽에 있다. 같은 지역에 유사한 전설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僧云。古昔廐戸皇子守屋大臣と戦敗して、岡村にのがれ來れり。一岩窟にかくれて、幸に免るゝことを得たり。然して後一寺を建。今の西隆寺是なり。太子の隠れ玉ひし岩窟の中方十間許、常人の家宅のごとし。一日叡山の僧徒此岩窟を堀て、延曆寺の用とすといへり。(『近江國輿地志略』)

여기서는 太子가 숨은 곳은 「岩窟」였다는 승려의 말이 보인다. 속에 숨은 話型은 푸조나무 설화와도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栗太(쿠리타)郡曾塚(아이즈카)村 安興寺에는 다음과 같은 설화가 있다.

土俗或は云、上宮太子、守屋の連と戦ひ、暫此地に蟄居することあり。其後守屋を亡し、此地に伽藍を建立す。安興寺是なりと云。<sup>26)</sup>

여기에 보이는 安興寺는 현재 위치를 알 수 없으나 栗太는 현재 草津市 부근이기 때문에 가까운 지역에 이런 설화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 8. 近江와 전쟁

그러면 守屋合戰과 太子가 어떤 경위로 결합된 것인가?

太子伝 중에 太子가 지방을 순회했다는 설화는 『正法輪藏』를 비롯해서 여러 太子伝에 인용되어 있고<sup>27)</sup> 특히 「黑駒」를 타고 전국을 순회하는 설화는 太子와 지방을 연결시키

25) 『大日本地誌大系(二四)』. 이하 동서의 인용은 이것을 사용.

26) 『近江輿地志略』p371

는 좋은 자료가 되었을 것이다.

그러면 近江國에 太子 전설이 많은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近江國가 지닌 지세적 특징이 반영되어 있다고 생각된다. 이 특징이라는 것은 동서를 연결하는 위치관계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守屋合戰에는 원래 近江는 등장하지 않았다. 『日本書紀』崇峻元年七月의 기사를 보면

從志紀郡、到澁河家。大連親率子弟與奴軍、築稻城而戰。於是、大連昇衣措朴枝間、臨射如雨。其軍強盛、填家溢野。皇子等軍與群臣衆、怯弱恐怖、三廻却還。

라고 河內(카와치)國 (현재 大阪府南河內郡、八尾市付近) 부근에서 전투가 있었고 세 번 퇴각하게 되었다고 한다. 그 때 어디로 도망간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었다. 그리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伝曆』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철퇴한 장소에 관한 기술이 없다는 점이 새로운 설화가 생겨나게 된 계기를 마련했다고도 할 수 있다. 해석의 차이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단순히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만으로 설화는 생기지 않는다. 近江가 선택된 구체적인 이유가 필요할 것이다.

그래서 주의하고 싶은 점은 太子 전설이 퍼지고 있는 琵琶湖 동남부 일대는 옛날부터 군사적 요지였다는 점이다.

이미 선행연구에서도 지적하였듯이 이 지역은 고대부터 수많은 전쟁이 벌어진 군사적 要地였다. 특히 瀬田橋는 平城京 혹은 平安京에서 동쪽으로 도망갈 때 중요한 分岐点으로 여겨졌다<sup>28)</sup>. 琵琶湖 동남부에서 壬申내란 때 전쟁이 있었던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더욱 주의하고 싶은 점은 守屋合戰은 원래 四天王寺 건립 설화였다는 사실이다. 『書紀』나 『伝曆』에도 명기되어 있듯이 전쟁 끝에 四天王寺가 건립되었다는 점은 太子 신앙을 생각할 때 압도적으로 무거운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四天王寺가 太子 신앙의 중심이 된 이유는 바로 이 설화 때문이다. (太子가 四天王寺에 갔다는 기사가 실은 『書紀』나 『伝曆』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四天王寺의 기와를 만들었다는 瓦屋寺에 관한 전설이다. 瓦屋寺과 守屋合戰 이야기는 四天王寺를 매개로 연결되어 있고 『正法輪藏』등 중세 太子伝의 영향이 있다고 하면 역시 四天王寺가 주목되는 것이다. 물론 이 부분은 추측에 불과하고 확실하지 않다.

27) 渡辺信和「地方と説話——聖徳太子伝記類における地域の特定をめぐる——」(『説話文學研究』26、1991年6月)

28) 関丙勳「『伊勢物語』六段の「あくたがはといふ河」考——地史的視点から」(『國語と國文學』916、2000年3月)

## 9. 맺음말

近江國에는 太子와 관계가 있는 전설이 많이 있었다. 특히 그것은 琵琶湖 동남부에 집중되어 있고 대부분은 守屋合戰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전설이 언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油日神社가 가지고 있는 緣起는 室町 말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 적어도 이 시기에 사찰의 유래를 太子와 관련시키는 전설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많은 전설들이 守屋合戰과 관계가 있는 것은 近江國가 가진 전략적·지세적 특질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앞에서 논한 사정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없다. 각기 사찰의 문제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현지 조사를 포함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 【부기】

본 논문은 2004년도 경희대학교 지원에 의한 결과 임.(KHU-20040441)

### 【參考文獻】

- 大屋徳城(1921.2)『仏教各宗に於ける太子信仰』、法藏館 pp.1-131
- 小倉豊文(1963.9)『聖徳太子と聖徳太子信仰』、綜芸舎 pp.1-135
- 林幹弥(1972.6)『太子信仰』、評論社 pp.1-280
- 林幹弥(1980.2)『太子信仰の研究』、吉川弘文館 pp.1-492
- 金治勇(1979.3)『聖徳太子信仰』、春秋社 pp.1-351
- 武田佐知子(1993.12)『信仰の王權聖徳太子』、中央公論社 pp.1-203
- 藤井由紀子(1999.8)『聖徳太子の伝承——イメージの再生と信仰』、吉川弘文館 pp.1-215

## 要 旨

近江國には、太子と關わりを持つ伝承が、數多く存在している。特に、それは琵琶湖の東南部に集中しており、その多くは、守屋合戦譚と關わりを持つものであった。本論文では、近世の地誌を手がかりにしながら、全体の見取り図を描き、更に、この地方の太子信仰が持つ特徴について論じる。

こうした伝承がいつ頃生まれたのか、その点ははっきりしない。ただし、油日神社の縁起に關しては室町末期までは遡ることができ、少なくとも、この頃までには、何らかの形で、寺社の由來を太子に關係させた伝承が生まれていたと考えられる。また、そうした伝承の多くが守屋合戦と關係を持っているのは、近江國が持つ、戰略的・地勢的特質のためであったと考えられる。

キーワード：近江、滋賀、聖德太子、聖德太子傳、油日神社、太子信仰

투 고 : 2004. 11. 30  
1차 심사 : 2004. 12. 11  
2차 심사 : 2005. 1. 4

住 所 : (449-701)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서천리 경희대 우정원 2369  
電 話 : 011-9930-3621  
e-mail : nosmoke@attglobal.net